



특별기고
윤소아의
미얀마 라오스 문화기행 ①

세속에 때묻지 않은 천상의 음악 울려

#미얀마 관문 양곤의 첫 인상

오랫동안 꿈꾸던 미얀마, 라오스 여행은 난행 고행의 여정이었다.

적은 비용으로 혼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배낭여행이 무척 매력적이지만 모험을 이겨낼 각오와 용기가 있어야 하며 즐거움과 동시에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중국 20년, 인도 15년 배낭여행의 경험을 살려 사회주의 국가 불교국가로 알려져 있는 이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전통, 자연환경과 그 나라 국민들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고 싶었다.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전날 밤 태국 수완나폼 공항 의자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고 새벽 5시 미얀마 탑승수속을 했다. 예상한 대로 정시에 떠나지 않고 2시간 더 지체한 다음 이륙한 소형비행기는 1시간 뒤 전 수도인 양곤에 도착했다.

서너 시간 동안 어떤 미얀마 아가씨와 대화를 많이 나눴다. 그는 한국에 가서 몇 년 일하고 싶다고 했고, 아웅산 수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약간 흥분해서 군사정권을 못 마땅히 여겼다. 지난날의 나를 연상시키는, 정이감이 강하고 부패한 기득권에 반발하며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적극적인 민주화 투사를 닮았다.

약간의 사레비와 한국에서 가져간 짐낭, 불펜 등을 선물하고 아가씨와 작별했다. 이제는 혼자서 여행을 해야만 한다. 돈이 넉넉하다면 가이드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지만 하루에 2백불이 드는 그런 여행은 민주화 운동과 불교 글쓰기, 배낭여행의 경력이 전부인 내에게는 사치이며 또 그럴 여유가 없다. 걸어서 찾아간 곳은 술래파고다, 양곤 시내의 중심지역이며 큰 시장이 있는 배낭여행객의 메카로 보면 된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조성된 이 거리는 술래파고다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반듯한 블록으로 이뤄져 있어 길과 건물을 찾기가 쉽다. 마치 종로 파고다를 연상시키는 술래파고다는 십자모타리의 원형 건축물이다. 1층에는 상가와 불교용품점이 있고 2층은 사원으로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서둘러 탑 한 바퀴를 돌면서 참배하고 밖에 나와서 사진 몇 컷을 찍었다. 20분 동안 걸어서 숙소로 돌아오느라 속옷이 땀에 흠뻑 젖었다.

사워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 저녁에는 시장 통을 산책하면서 간단한 요기를 했다. 인도인거리와 차이 나타운이 낮에는 대단히 붐비다가 저녁에 일찍 철수함으로써 쉼직한 분위기가. 낮과 밤의 거리풍경과 풍습은 이곳의 거리가 중국과도 다르고 여느 동남아와도 다른 인도도시와 비슷하다.

먹을거리에 관한 푸짐한 인심을 느낄 수 있어서인지 낮에 본 시장 통은 온통 먹을거리가 지천이었다. 떡, 과일, 과자며 고기, 야채 국수가 한 겹에 거래되는 것을 보았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군사독재국가로서 민주주의는 열악하지만 생필품이 풍부함 풍경은 나중에 여행을 마칠 때까지 이어졌다.

#다섯 번째 경전 결집 한 성지

15시간 반이나 걸려서 양곤에서 691km나 떨어져

있는 만달레이에 도착했다. 새벽 3시 사이클을 타고 숙소로 옮겼다. 캄캄한 밤중이라 가이드북에 적혀있는 대로 값싸고 깨끗한 숙소를 원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보니 주위 산만하고 탁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양곤에서처럼 번두리가 아닌 중심가는 정제가 덜 된 엔진유를 쓰다 보니 숲으로 뒤덮인 국가 임에도 혼탁하고 냄새가 역했다.

만달레이는 두 번째 큰 도시로 인구는 100만 명이며 마지막 왕조로서 영국과 3차에 걸친 60년 전쟁 끝에 식민지가 되었다. 지리적으로 미얀마의 중앙에 위치한 만달레이는 비운의 땅인 셈이다.

옛 수도답게 불교 승려의 60%가 이곳에 상주하고 사찰과 승가대학이 대부분 큰 규모를 자랑한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만달레이 언덕에 올라갔다. 3인승 자전거를 대절해서 가능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았으므로 도보여행은 맞지 않았다.

입구에는 초대형 사자상이 압도적이다. 여기에서 10달러를 내면 만달레이 전 유적지를 볼 수 있다. 954계단의 높은 회랑을 오르면 산 정상, 서울 남산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 만달레이 전 시가지가 한 눈에 보인다. 산정상의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이곳에 오르는 길과 회랑이 사방으로 나뉘어 웅장한 사원건축을 엿보게 한다.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1800년대 산정상에 사찰 불사의 원력을 품은 우칸디 스님이 지역사찰의 승려와 주민들의 반대로 절을 못 짓자 맞은편 산에 살고 있던 왕 코브라가 스님을 도와서 불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다 한다. 웨야트 사원은 만달레이 여행의 필수코스인 석양이 아름다운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큰 뱀 신앙은 토속신앙의 토렘으로 불교가 들어오기 전 원주민 신앙의 일환으로 보면 되고 코브라가 도왔다는 것은 곧 원주민들의 협조를 의미한다. 동남아시아 전 지역의 사찰과 사당에서 이와 같은 큰 뱀 신앙이 중국으로 가서 용 신앙이 되었을 것이다. 뱀과 용은 다 같이 남방지역과 물을 상징하며 왕뱀, 나아가서는 수호신으로 승천하는 용의 원조가 아닐까 싶다.

만달레이 힐 바로 아래의 구도도 사원은 1859년에 건립된 절로써 2400명의 스님들이 6개월에 걸쳐 경전을 열람하고 대리석에 새겨 729개의 탑 속에 모셨는데, 인도에서 총 네 번의 경전결집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경전결집이 이루어진 불교역사에 길이 남을 성지이지만 한국불교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다. 중국 등 북방대승불교를 선호할 뿐 남방소승불교는 외면하는 까닭일 것이다.

729개의 대리석에 경전을 새기는데 무려 7년 5개월이 걸릴 만큼 대작불사였을 뿐 아니라 탑의 숲에 들어온 것처럼 백색탑이 황금보탑을 중심으로 도열해 있는 모습은 불가사의하게 보였다. 바로 옆에 대불사를 이룩한 아타나루카 대왕과 타야디칭의 공적비가 작게 보였다.

참배하고 나오다가 광장에서 참배객을 만났다. 이상한 것은 그의 어린 딸들이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어 촬영했다. 끝도마져 우리의 한복과 흡사해서 오랫동안



① 만달레이힐의 거대한 석사자상.
② 미얀마 양곤의 중심지, 술래 파고다.
③ 마하간다웅 짜웅 대사원의 한말들이 밥통.

다섯 번째 경전 결집한 성지 만달레이, 미얀마 불교의 대본산 수백명 승려들 탁발 '진풍경' ... 우포야신 사원 암자 400개

안 생각에 잠겼다.

복식화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문화인류학의 시각으로 보면 치마저고리, 옛 여성들의 쪽진 머리, 초가집 풍경, 쌀농사 등은 분명 남방문화이며 인도와 미얀마 등을 거쳐 우리에게 유입된 문화라고 본다.

#만달레이, 미얀마불교의 대본산

카드지 뒤편은 200년 된 옥불사원으로 유명하다. 백옥으로 빛은 아담한 부처님이 무척 단아하고 아름답다. 바닥 역시 각종 대리석으로 깔아놓아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준다.

웨난도 목조 법당은 도서관, 박물관을 겸한 곳으로 150년 된 티크 목재가 고색장연하다.

마하무니 사원은 거대한 황금불상으로 영험하기로 소문 나 있어 신도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나도 금박 1통을 5달러에 사서 부처님 발목에 붙여보았다. 사방으로 회랑을 가진 큰 사원이다.

그 다음 날 시내에서 삼십분 거리에 있는 아마라푸라 지역의 불교 본산이며 최대 수도원인 마하 간다웅 짜웅 대사원에 갔다. 가는 도중 비구니 스님들의 아침 탁발 행렬과 염불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눈을 잠시 감고 들으니 최고의 명상음악으로 세속에 때묻지 않은 천상의 음악이었다. 그 후 몇 차례 더 미얀마 비구니 스님들의 염불을 듣고 CD를 구하려 애썼지만 끝내 구하지 못해 아쉬웠다.

오전 9시에 도착해서 대도량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초·중·고등 승가대가 함께 1200명의 대중들이 있어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다. 강당, 승원, 불당, 식당, 목욕탕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속옷을 입고 샤워하는 개구쟁이 학동들의 모습은 내 어릴 적 십대 사미승과 같았는데 촬영해도 문제가 없었다.

10시가 넘어 가장 큰 식당에 가니 벌써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조금 있으니 수백 명의 승려들이 줄

지어 신도들이 마련한 점심공양 탁발을 하기 시작했다. 쌀 한 말이나 죽이 들어갈 거대한 밥통이 여기저기 놓이고 후에는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거대한 밥술과 국술이 보인다.

한참 서서 보고 있으니 한국인과 유사한 몽골리 미얀마 승려가 교통정리 하는 게 눈에 띄었다. 다가 가서 물어보니 그는 교수 겸 학감을 맡고 있는 주미 파라 스님으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매우 반가웠다. 작년에 오대산 상원사 등지로 2개월 방문한 친한(親韓) 스님이었다.

대사원 뒤에는 큰 강이 흐르고 150년 된 티크목다리가 1.2km나 연결되어 있었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목재다리다. 점심 공양 후 인근의 스카이스터 추앙 우포야신 불교사원은 1000명 승려에 400여 암자, 200개의 파고다가 있는 만달레이 최고 명승지의 하나로 오르 내리느라 땀까지 흘렸다. (계속)

시인, 동아시아불교문화연구소장



불기 2553('09)년 4월 26일(일) Lotus Lantern Festival 燃燈會

불교문화마당 Buddhist Street Festival 조계사 앞 우정국로 Jogye-sa Temple 12:00 noon ~ 7:00 pm

연등행렬 Lantern Parade 종로거리 Jongno Street 7:00 pm ~ 9:30 pm

대동한마당 Daedong(being together) Celebration 종각사거리 Jonggak Intersection 9:30pm ~ 11:00 pm

연등축제 2009